

冠岳語文研究 第1輯

中世國語의 時令語源 몇가지

——空間概念의 時間概念化 問題를 中心으로——

沈 在 箕

1979. 10

1. 序 言
2. 時間概念의 形成
3. 「끝」「봄」「연」
4. 「아침」「낮」「나조중·저녁」
5. 「아래」「고래」「굴피」
6. 結 語

中世國語의 時令語源 몇가지

—空間概念의 時間概念化 問題를 中心으로—

沈 在 箕*

1. 序 言

語源을 探索하는 作業은 그것이 아무리 精緻하다고 하여도, 어느 段階에서건 반드시 直觀에 依한 推論과 想像을 받아들여야 하기때문에 言語學의 어떤 下位分野보다도 非科學的이라는 非難을 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여 語源의 窮究는 度外視되거나 回避되어야 할 것인가? 그렇게는 말 할 수 없다. 하기가 豊富한 言語資料를 가지고 時代를 거슬러 올라가거나 或은 내려오면서 變化된 意味를 追跡하고 整理하는 程度의 語源論이라면 그것이 구태어 非科學的이라고 말할 必要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言語資料가 完全히 整備되었다고도 볼 수 없고, 資料自體도 豊富하지 못한 中世國語를 研究對象으로 하는 語源論에서는 多分히 非科學的인 想像과 推測을 甘受하는 假說을 設定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處한 現實이다.

本稿는, 이와같은 暗中摸索의 心境과 雰圍氣를 前提로 하여 時間概念을 나타내는 몇 개의 中世國語 語辭의 語源을 생각해 보려는 것이다. 「今」「夕」「今日」「再昨日」 따위의 語辭가 中世國語에서 어떤 形態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原意味는 무엇이었고 그런 語辭들의 生成 經緯는 어

* 서울大 國語國文學科 副教授(國語學專攻)

떠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範圍이다. 筆者는 이 글을 進行하는 동안 文獻에 依한 實證이 없음에도 不拘하고 果敢한 推定을 試圖하려는 誘惑에서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와같은 非科學的 衝動의 背後에는 合理性을 바탕으로하는 普遍的 認識方法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努力이 끊임없이 作用하고 있을 것이다.

2. 時間概念의 形成

世界에는 많은 事物들이 存在하고 이 存在들은 우리의 感官을 通하여 感知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모든 存在하는 事物이 반드시 感知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存在라고하는 것은 實體만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며 機能이나 關係까지도 包含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世界內에 存在하는 모든 것은 言語形式을 通하여 言表될 수 있기 때문에 言表에 動員되는 모든 種類의 가장 높은 段階의 것, 즉 範疇의 모든 것이 “存在”로 把握될 수 있다. 이러한 最高의 範疇속에서 恒常 共存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存在, 그러면서도 感知되기 어려운 存在가 있다. 그 하나는 空間이고 또 다른 하나는 時間이다. 이 두 개의 範疇가운데서 空間은 比較的 쉽게 理解되고 感知된다. 그러나 時間은 空間에 對한 理解가 앞서지 않는 限 理解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時間概念은 항상 空間概念과의 共存樣相을 通하여 意味上으로는 空間概念속에 牽引, 吸收, 內包, 同伴되어 나타난다.

時間과 空間,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이 兩者는 우리가 어떤 實體를 認識하려 할 때에 當面하는 두 개의 가장 基本的인 軸이다. 그것은 마치 幾何學에서 하나의 點을 認識하기 위해 X와 Y軸으로 構成된 座標를 設定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도 있다. 모든 實體는 空間과 時間의 두軸의 交叉點 위에 存在한다고 說明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論理

的 構造속에서만 把握될 뿐 感知되는 事實은 언제나 現場性만 強調되어
자칫하면 그리고 실제로는 매우 빈번하게 時間이라는 座標上의 또 다른
軸을 忘却하는 것이 普通이다.

베르그송에 依하면 時間은 하나의 持續(durée)으로 把握되는데 그 持
續이라는 概念에 依해서 우리는 事物의 內部에 潛入하게 되며 그렇게함
으로써 創造와 發展의 可能性, 未來志向의 約束이 주어 진다고 한다. 持
續은 우리가 그것을 알게되면서 人生을 날(經)과 줄(緯)로 엮을 수 있
게 만드는 原動力이 된다. 좀더 敷衍한다면, 持續이라는 時間概念이 完
全하고도 充分하게 理解되었을 때라야 空間과의 相補關係가 올바르게
理解된다고 表現할 수 있다. 時間은 이렇게 重要視되어 왔다.

모든 存在의 必然性은 이러한 時間과 空間을 벗어날 수 없다. 또 그
關係는 幾何學의 用語를 빌면 다음과 같이 比喻될 수 있다. 즉 座標上
에서 X·Y軸은 直角으로 交叉하는데 그 直角만큼(90°만) 回轉시키면
X軸과 Y軸은 서로 그 名稱만 바뀌고 그들의 機能은 如前히 座標上의
任意의 點들을 表示하여 주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時間과 空間도 恒
常 相對的으로 맞선 質量으로 바뀔수 있다는 事實이 重要視되어야 한
다. "A"라는 地點에서 "B"라는 地點까지 "t"의 時間이 소요될 때, "A"
에게 있어서 "t"는 곧 "B"를 뜻하며 "B"에게 있어서 "t"는 곧 "A"를 뜻
하기 때문이다. 다시 "t"가 점점 줄어들면서 A=B가 되는 순간 「A=
t=B」가 되어 時間과 空間의 合一이 일어난다.

이와같은 "여기 그리고 지금"(hic et nunc)이 言語에서 語辭上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英語에서 "here"는 그 內包意味가 "The present location"으로 規定된다.
"here"라는 具體性을 가진 場所는 반드시 現在의 位置라는 時間과 空間
의 合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成立할 수 없다는 뜻이다.

國語의 경우는 다음 章으로 미루고 간단히 한가지 例만 더 들어 時間

과 空間의 意味交易의 可能性을 더 分明하게 밝혀 보고자 한다. 漢字「時」는 時間概念의 形成過程을 매우 興味있게 暗示한다. 太陽(日)이 地球上(土)에 빛을 비칠 때에 物體의 陰影을 만든다. 그 陰影은 時間의 經過에 따라 方向을 바꾸고 길이(寸)를 달리한다. 이 세가지 要素의 結合(日, 土, 寸)이 곧 時間이라는 뜻이다.¹⁾ 이러한 發想은 干支에 表現된 十二支가 方位(空間概念)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同時에 時間을 나타내는 用語로도 兼用될 수 있게 하였다.

「當場」과 「即時」라는 두 개의 漢字語도 마찬가지로 意味에서 우리의 注意를 끈다. 하나는 空間概念「場」이란 글자가 다른 하나는 時間概念「時」라는 글자를 갖고 있으나 이 두 單語가 指示하는 意味場은 恒常 共通되어 있다.

「동안」이라는 固有語 語辭도 같은 意味에서 우리의 興味를 刺戟한다. 辭典類에 登載되기로는 池錫永의 字典釋要에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처음 보인다.²⁾

庭^㉔ 門屏 돌정 直也 곳을정 ^㉕
 隔遠貌 逕— 동안돌정 ^㉖

여기에 쓰인 「동안돌—」의 「동안」은 分明히 空間的 相距를 뜻하는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 「동안」은 「한 동안」 「학교를 다니는 동안」 「내가 없는 동안」 따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時間上의 期間을 뜻하는 곳에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이것은 애초에 空間概念을 나타내던 語辭가 時間概念을 나타나게 되면서 原意味를 오히려 副次的 意味로 자리 바꿈을 시킨 좋은 예가 된다. 空間과 時間은 語辭로 表現될 때에는 이와같이 恒常 相補 置換의 可能性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發端은 언제나 空

1) 說文解字에 따르면 「時」에서 「土」는 進行 즉 “之”의 뜻으로 되어 있다. 太陽의 進行을 空間秩序의 變化(그림자의 길이와 움직이는 角度)에 맞추어 區分한 것이다.

2) 崔範勳, 字典釋要에 나타난 難解字釋에 대하여(국어국문학 70호 p. 60) 參照

間概念으로부터 시작된다.

3. 「곧」, 「뜰」, 「열」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空間이나 時間을 微分化하여 우리가 日常生活에서 使用할 수 있는 매우 작은 單位를 指稱하는 語辭를 얻었을 때, 이러한 語辭들은 空間과 時間을 同時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된다.

먼저 「곧」이라는 15世紀 國語單語를 檢討하여 보자.

곧 (場所)

현고돌 울마시노 幾處徒(龍歌 110)

處는 고더니(月釋 2:8)

곧 (即時)

부메 授記 다 하시고 곧 ㅅ中에 無餘混雜에 드르시니라 (釋詳 13:34,35)

이들 語辭는 現代語에 와서 場所를 나타내는 「곳」으로 表記 및 發音上的 變化를 입게 되었으나, 起源的으로 같은 語辭이었음은 疑心할 餘地가 없다. 「當場」과 「即時」가 共通의 意味領域을 가지는 것과 全히 同軌의 現象이라고 할 수 있다. 「곧」의 處格助詞와의 結合形 「고대」는 現代方言에서 「바로 隣接한 位置」 「今方, 即時, 當場」 따위의 意味로 쓰이고 있다. 또 興味있는 事實은 「곧」이 場所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例外없이 冠形語를 必要로 하는 不完全名詞로 理解되어 왔으나, 堂堂히 完全한 名詞 즉 場所를 나타내는 單語로 居處, 定處를 指稱하는 경우로도 쓰였던 事實을 밝힐 必要가 있겠다.

훈 사롬도 ㅅ을 일홈이 업게 ㅅ 지어다(驗京畿洪忠道監司守令等繪音 1783, A. D)

中世國語 語辭 「뜰」도 空間 및 時間概念을 同時에 나타내고 있었다.

이것도 起源的으로는 空間意味를 먼저 나타냈었다.

틈(隙)

틈爲隙(訓正解例合字解)

金으로 싸헤 사로물 틈 업게 하면(釋詳 6:24)

뵤에 드틀 곤하며 猶如隙塵(金剛上 11)

틈(暇)

알뎡 事理를 노겨 틈 업수문 融前事理 而無間然(永嘉下 82)

現代語 「틈」(方言에서 「잠」)도 中世國語의 「뵤」과 마찬가지로 “間隙”과 “餘暇”라는 두가지 意味를 다 가지고 있다. 「뵤」自體가 現代語에까지 그 音韻論的 變化를 거쳐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語辭로 「깁새」(機微)를 들 수 있으며 「틈」과 脈絡이 닿는 語辭로 「뵤」(잠은 時間, 小單位마을)³⁾을 생각할 수 있으나 現在로서 이에 對해 確信을 가지고 言及할 段階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열」의 問題로 들어가기 前에 「hic est nunc」의 大前提를 다기금 確認할겸 中世國語의 「터, 데」(空間概念)와 「뵤」(時間概念)가 「하나ㅎ」(一)와 結合했을 때 그 두 語辭들이 어떻게 相似한가를 想起하기로 하자.

하나ㅎ+터/데》한데/한데 (*호+터/데)》한디)

하나ㅎ+뵤》함께 (*호+뵤)》함께)

「한데」와 「함께」는 얼마간 意味의 變化를 입어, 「共同으로」라는 共通意味를 갖고 있다. 이 경우에 意味의 焦點은 「하나ㅎ」에 있는 것이요, 그 뒤에 쓰인 「터/데」나 「뵤」는 어느 것을 擇해도 좋다는 事實을 暗示하는 것 같다. 이것은 微細한 單位에 이르면 空間과 時間은 意味上의 交易이 보다 自由로울 수 있다는 證據가 될지하다. 자, 이제 「열」의 問題

3) 高句麗語 「呑·旦·頓」이 마을(谷)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現代語 「뵤」과의 關聯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하나의 假想일 뿐이다. 아직은 이 事實을 合理化시킬 音韻論的 뒷받침이나 方言의 殘形들이 存在하지 않는다.

水谷城縣--云買旦忽 於支呑--云翼谷 十谷縣--云德頓忽

로 들어가자.

時間을 나타내는 語辭의 中樞는 「現在」가 될 듯싶다. 그리고 現在를 認識하는 것은 「現場」을 指稱하는 「此處」라는 概念과 分離되지 않을 법도 하다. 이러한 假定을 세웠을 때, 後期中世國語의 「今」에 對하여 우리는 매우 興味있는 事實에 接한다.

「今」

今은 이제라 (月釋序 13) <1459 A. D>

今: 얼 금 (字會下 2) <1527 A. D>

今 이제 금 (類合上 19) <1576 A. D>

「今」이란 概念에 대해 「이제」라 불려온 것은 月印釋譜以來 現代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것인데, 唯獨 訓蒙字會에는 「얼」이라하여 「今」을 表現하는 또하나의 語辭가 있었음을 가리키고 있다. 漢字의 釋이 때때로 保守的 性向을 띠고 매우 이른 時期의 語形을 보여주는 事實은 累次 指摘되어온 바이지만⁴⁾ 이 「얼」도 分明 그러한 保守的 釋의 一例임에는 틀림없는데, 이 「얼」은 무엇인가? 이에 對하여 想像과 直觀의 寶庫인 古歌研究에 다음과 같은 暗示的 句節이 있다.

• 『今呑 얼呑』

今 訓讀 古訓 「얼」 現行語의 「여지, 여지곳」(여베, 여베곳, 「얼」의 方位格形 副詞)은 그 遺痕이다. 今 얼 (字會下 2)

「여베」의 本來構成은 「여디에」의 合成이니 이는 「여기」의 原形과 對照하여 알 수 있다.

이여그에—이여디—여디

이여디에—이여베—여베

「이여디」의 「디」는 原始抽象名詞 「디」의 主格形이 「것 줄 바」등의 原義로부터 時間的 意義로 轉한 것인데, 「이디에」의 合成 「이베」와 「이여디」의 合成 「얼」은 共히 「今」의 調이 되었으나 그 原義는, 前者는 方位格으로 副詞이고 後者는 名詞인 것이다. 但 近古以來 前者의 慣用에 依하여 「이베」(이제)는 名詞로도 混

4) 李基文, 訓蒙字會의 研究 1971, pp. 114f.

同 仍用되었다.⁵⁾

以上 所說을 우리가 現在로서 取信할 수 있는 것인지는 至極히 망설여지면서도 앞서 前提했던 우리의 假定 즉 時間概念의 語辭는 空間概念의 語辭로부터 轉用 生成했을 것이라는 假定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에, 無源의 前記所述은 留保의 狀態에서 信憑의 世界로 끌어들일 수 없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現代國語의 「여태」가 「열」의 殘影이라라는 推測만 받아들이는 程度에서 滿足한다면 우리의 語源論은 想像을 中止하는 것이 되고 想像의 幅을 넓히던 證據없는 學問을 하게 되는 더렘마에 빠진다. 그러면서도 “hic est nunc”에 附着되는 다음은 未給한 대로 「열」이 「*여태」라는 空間概念의 語辭였음을 덮고자 하는 것이다. 現代語의 「여기」는 勿論 「이어그에」에 起源을 둔 다른 系列의 語辭로서 現在까지 持續되어 쓰이는 것이다. 좀 더 窮究가 必要할지 모르겠다.

4. 「아침」 「낮」 「나조중」 · 「저녁」

「아침>아침」, 「낮」 「나조중→저녁」의 세 語辭가운데서 空間概念과의 關聯은 「저녁」이란 語辭 하나에 局限한다. 그러나 本稿는 이들 세 語辭를 전부 簡略하게 言及해 보겠다.

時間과 空間을 細分하여 表現하는 精密한 用語가 있다고 하더라도 日常生活과 關聯된 用語는 그것대로 또 必要한 法이다. 假令 一日三食의 傳統은 그 食事時間을 表示하는 語辭를 必要로 했을 것이고 하루를 日照時間과 그렇지 않은 時間과의 區分으로 「밤」 「낮」이라 兩分하는 따위 동이 必要했을 것이다.

「아침」은 다음과 같이 漢字 「朝, 旦, 早, 晨」等に 對應되어 쓰였다.

「아침」

5) 梁柱東, 古歌研究, 1916, p. 646.

그저귀 粳米를 아출 뷔여든 쓰 나조히 닉고(月釋 1: 45)

날마다 아츨뵈 每日於晨朝(佛頂上 3)

아출 단, 且 아출도, 朝 (字會上 2)

아출노을, 早霞 (譯語上 2)

아출 나조히 守護야, 晨夕守護 (圓覺下三之二 88)

이 「아출」은 이른 時間이란 「早」의 概念과 密接한 關係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鷄林類事의 「且曰阿慘」朝鮮館譯語의 「早 阿怎」「今朝 我嫩阿怎」「早起 阿怎以你格刺」등의 表記에서 「*ač'Am」乃至 「*ačAm」을 생각하게 하는데 萬一 「*—Am」을 「보름(十五日)」「그믐(晦日)」등에서 보이는 接尾辭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게 되면 「*ač/ač'-」라는 「이르다(早)」또는 시작하다는 意味의 語幹形態素를 抽出할 수 있다. 이들 語幹은 두 가지 系列의 語辭를 만들었을 可能性이 있다.

「*ač' —Ak (suffix) 名詞形

아죽>아죽>아직(現代語에선 未到 “yet”의 뜻 副詞)

아져 (現代 서울 및 京畿地方의 「아침」이라는 方言)

*ač' —An(suffix) 冠形詞形

아춘아달(筵)

아춘설(除夜)

위의 語辭는 모두 「이르다(早)」는 意味를 버리지 않고 있음이 注目된다.

「낮」은 주로 「晝·曉」에 對應되었다. 이 語辭는 아마도 「밤(夜)」과의 對立으로 쓰이지 않았나 싶다.

「낮」

새 버리 나조 도드니, 煌煌太白堂晝垂示(龍歌 101)

밤 나줄 조차, 逐日夜(佛頂下 11)

낮 晝 낮 上曉(字會上 1)

낮 晝 (類合上 3 石千 34)

「낮」은 後述할 「나조ㅎ」와 意味系列에서는 다 같이 「늦—(晚)」과 緊

은 關聯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조ㅎ(夕)」가 早晚間 「나죄」라는 形態를 가지게 되면서 「낮」의 處格形 「나지」와 混同이 생기게 되자 「낮」은 暫定的으로는 「한낮」「대낮」或은 「점낮」으로 쓰이고 「나조ㅎ」의 後身인 「나죄」도 결국 다른 語辭 「저녁」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점낮」은 松江歌辭 思美人曲의 「淸光을 쥐여내여 鳳凰樓의 붓티고져 樓우히 거러두고 八荒의 다비최여 深山窮谷 점낮마티 밍그쇼셔」에 一例가 있고 또 더 이른 時期의 것으로 鷄林類事의

「午日稔宰

暮日占棟或言古沒」

이라 쓰인 記事를 「午日占棟」이라고 고쳐 읽은 뒤 그 音을 「점낮」의 앞선 時期의 것으로 推定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⁶⁾ 그러나 이러한 問題는 모두 아직도 더 많은 解決點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가장 興味거리인 「나조ㅎ(夕)」의 問題로 들어가 보자. 「나조ㅎ」는 現在 北部方言에서 「나죄, 나주왁」⁷⁾ 같은 形態로 그 殘影이 남아있고 대체로 18C以後 「저녁」에 代替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 「나조ㅎ」는 漢字로 「晚·暮·夕」에 對應되어 쓰여졌다.

「나조ㅎ」

西人녀귀 가면 나조힐씨 (月釋 2: 50)

顔는 히동르하니 나조홀니르니라 顔如日顔言晚暮也 (楞解 2: 5)

브르맷 굶겨리 아츨 나조히 업도다 風浪無晨暮(杜解 21: 38)

때로는 「나죄」로도 表記되었는데 이것은 「나조ㅎ」보다는 時期가 늦은 듯하다.

나지 물마면 현이오 나죄 어드우면 夢이니, 淸明則想 夕暮則夢(楞解 10: 3)

아츨 나죄톨, 朝夕(南明下 2)

6) 陳泰夏, 鷄林類事研究 1975, p. 295.

7) 小倉進平, 朝鮮語方言의 研究(上) 1944, p. 25.

8) 劉昌淳, 語彙史研究, 1971, p. 158.

나죄 석, 夕 (字會上 2, 石千 34)

「나조ㅎ」는 「아침」이 「早・前」이란 意味와 接合된 것처럼 「늦-」(晚・暮)의 意味와 함께 一旦 「後」라는 意味와의 關聯을 推想할 수 있다.

參考로 英語 morning과 evening의 變遷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OE: morgen

ME: morwen, moren, morn

PE: morn, morning. (dawn, sunrise, the beginning of a day)

OE: aefen (originally 'after')

ME: eve, even,

PE: even, evening

그리고 「나조ㅎ」라는 形態는 다음과 같은 內的再構의 方法을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즉

*načoy < načoh 나조ㅎ
načop 나중

이것은 “나모, 낱”에 대하여 *namoy이란 內的再構의 方法으로 解決하였던 例를 聯想하게 한다.⁹⁾

načoh는 處格接尾辭「-ay」와의 結合型으로 「načohay」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다시 縮約되어 「načoy」라는 形態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낮(晝)」과의 混同이 일어나게 되어 「밤낮」「한낮」「대낮」으로 쓰이면서 「낮」이 持續的인 勢力을 갖게되자 「나죄」는 必然的으로 消滅되고 다른 語辭에 代替될 運命을 갖는다. 한편 「나중」은 그 前段階 *načoy에서 分離되어 “j”음을 얻었을 때 이미 時間上의 「뒤(後)」를 뜻하는 語辭가 되었고 그것은 偶然히 迺終(龍歌 78.) 乃終(釋詳 9: 27)에 合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語末의 *-γ型이 -h와 -p으로 바뀐 또 다른 例는 「장(地)」를 指摘할 수 있다.¹⁰⁾

9) 李基文, 國語音韻史研究 1972, p. 84.

10) 「집웅>저봉」도 같은 部類에 들 것이다, 李基文, 國語史概說, 1973, p. 208

*tar < t'ah ㅅㅎ...消滅 (15世紀優勢)
 < t'ap ㅅㅏ...殘存 (近代以後優勢)

우리의 關心은 다시 「나조ㅎ, 나죄」동이 勢力을 잃으면서 이에 代替되어 나타난 近代國語 語辭 「저녁」에 集中된다. 「저녁」이 文獻上에 첫 선을 보이기는 譯語類解와 同文類解程度에 週及하는 것이지만 그 起源은 매우 오랜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의 假說은 「저녁」이 「더(彼) + 녀(方便)」으로 分析되리라는 것이다.

「저녁」

晩夕 저녁(譯語上 11)¹¹⁾ 晩霞 저녁노을(譯語上 2) 夕(同文上 5)

「녀」

나랏 臣下 太子스 너글 들면(釋詳 6:25)

東너글부터 西스녀 버르매 從東西壁(楞解 6:17)

11) 「저녁」이 <더+녀>으로부터 生成된 語辭라는 假定下에 譯語類解에 나오는 「저녁」이 口蓋音化가 일어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더녁」으로 表記되었을 경우 本稿의 主張은 유감없이 立證되었을 것이다. 「*더녁」이 그 다음 段階에서 口蓋音化되었으리라는 推理는 너무도 當然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譯語類解(1690 A.D)는 애석하게도 「저녁」으로 表記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期待가 完全히 霧散되어 버리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譯語類解는 15世紀 語辭와 比較했을 때 이미 口蓋音化된 다른 語辭의 例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修行 조심하다(譯語上 35)

燒紙 종회술오다(譯語上 7)

上朝 조회예가다(譯語補 7)

위의 例에서 「조심하-」는 漢字語 「操心」에 起源하는데 同書에 “操馬 도습하다(下 49)”로 表記하고 있어 同一한 글자 “操”가 경우에 따라 “도·조”의 두 개로 表記되었음을 보이고 있다. 「종회」는 周知라는 바와 같이 15世紀에 「*도회」에 週及하는 것으로 訓蒙字會에는 「조회」로 表記되고 五倫行實圖에는 「도회」로 表記되었었다.

차 밧던 도회와(五倫二32) <1797 A.D>

紙 조회 저 (字會上 18) <1527 A.D>

그리고 「조회」는 漢字語 「朝會」임은 分명한데 그것이 「조」로 表記되어 있다. 그러나 訓蒙字會에는 아참 道(朝)로 表記되어 있다.

以上과 같이 口蓋音化의 表記가 語辭에 따라 보다 이른 時期에 口蓋音化된 例를 보인다는 事實이 注目된다면 譯語類解에 보이는 「저녁」이 「더녁」으로부터 口蓋音化했으리라는 可能性은 充分한 것이다.

「녁」은 起源的으로 空間概念인 「方位」를 지칭하는 것이었으나 「얌을 녘」「해질 녘」 따위 現代語에서는 時間概念의 「무렵」이라는 意味도 보이고 있다. 그러면 15世紀文獻에서 「더녁」은 어떻게 쓰였는가를 보자.

「더녁」

더녁 마애 건나가사 일후미 너비 들어 (釋詳 13: 8)

涅槃은 더녁 마시라 (月釋 2: 25)

위에 보이는 것처럼 「더녁」은 「彼方」이란 뜻만을 가지며 涅槃은 「彼方の 끝」이라는 空間概念(「彼岸」)을 通하여, 그 空間과 함께 存在하게 되는 時間概念 곧 「未來」까지도 나타내고 있다. 「涅槃」이라는 空間과 時間을 가진 抽象概念에 對해 固有語의 「더녁갠」으로 풀이한 것은 15世紀 諺解當時의 便法이요, 실제로 通用되던 語辭는 아니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急造翻譯語일 可能性이 있다는 뜻인데, 假令 다음과 같이 「過去」「現在」같은 漢字語도 매우 逼同하지만 實際로는 쓰인 일이 없는 變역어(더나전 뉘, 나다잇는 뉘)를 使用하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過去는 더나전뉘오, 現在는 나다잇는 뉘오(月印第二 21)

이렇듯, 複合語로 形成된 「더녁갠」이 「涅槃」을 표시하는 語辭임엔 틀림없으나 그것이 當時에 一般的으로 通用되었을 可能性은 매우 희박하다. 그러나 그러한 表現이 潛在語彙로 存在하고 있다가 「나조ㅎ, 나죄」가 弱化되었을 때, 새로운 代替語彙로 登場한 것이 아닌가하는 推測을 낳게 한다.¹²⁾

12) 「저녁」이 舊의 共通意味가 있기 때문에 「점글+녁」「저물+녁」과 같은 複合形態로 부터 생겼을 可能性을 想像할 수 있지만 “-口글-·-물-”의 省略을 說明할 方法이 없으며 「저물녁」이라는 複合語句가 現在에도 單一語로 느껴지지 않고 쓰인다는 事實이 우리의 想像을 停止시킨다.

한편 「이녁」은 現代語에서 “하오할 사람을 좀 낮게 부르는 第二人稱 代名詞”로 매우 드물게 쓰이고 있다. 이녁을 볼 낮이 없구료

空間概念의 語辭는 언제고 機會만 있으면 時間概念의 語辭로 變貌할 準備가 되어 있는 豫備語辭의 機能을 갖고 있다.

5. 「아래」「그제」「글피」

日字의 時令을 表記한 文獻으로는 아무래도 前期中世國語資料로 손꼽히는 鷄林類事를 그 祖宗으로 삼아야 하겠다. 우리의 作業도 당연히 이 資料를 읽는 것부터 시작된다. 必要한 部分만 摘記하면 다음과 같다.

前日 記載

昨日 訖載 (說邪本엔 「於載」)

今日 烏棟

明日 轄載

後日 毋魯

「前日 記載」의 「記載」는 現代語 「그제」에 對當되는 것으로 後期中世國語의 「그저기」와 같은 語辭였을 것이다. 이 語辭의 뜻은 現代語에서 「再昨日」이지만 12世紀에서 15世紀頃까지는 반드시 再昨日의 뜻이 아니라 昨日以前의 어느 過去(at that time)를 막연하게 指稱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例를 보자.

그저기 燈照王이 普光佛을 請하수박 (月釋 1: 9)

그저기 世尊의 四衆이 圍繞하수박이서 (釋詳 13: 22)

여기의 「그저기」는 단순한 過去의 어떤 때를 가리킨다. 그러나 「그저기 여귀 노력와(新語 1: 1)」의 例를 보면 近代國語時期인 17世紀에는 分明히 再昨日을 뜻하고 있다. 아마 後期中世國語時期에 이미 昨日에 하루 앞선 날을 表現할 必要에 處하여 16世紀頃에는 「그제」 또는 「그저기」가 再昨日을 意味하는 語辭로 굳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現代에 와서는 「그제」와 더불어 「그저께」라는 또 다른 語辭가 있다. 이것은 아마 다음같은 同意重複現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其)+적(時)+의(「르>쓰」의 處格形)>그적계/그저계

한편 「그계」는 앞서 言及한 그저귀[그(其)+적(時)+의(處格助詞)]의 “-저귀”部分이 漢字「際」에 이끌려서 一種의 Contamination이 發生하였다고 보는 것이 正當한 說明이 될 수 있겠고 「적(時)은 Kalgren이 再構한 太古語 *diag에 對應시켜야 할 것이므로 결국 “적”은 오래前時期 中國으로부터의 借用語가 되는 셈이다.¹³⁾

“再昨日”을 뜻하는 語辭로는 15世紀以來 오늘날까지 한결같이 方言으로 있어왔던 「아래에」 對하여도 우리는 注意를 기울여야 한다.

아래/아리(前日)

아랫 恩惠를 너저 버리샤 (釋詳 6:4)

아래 모던 鷓을 두어 曾置毒藝 (佛項下 10)

오늘날 이 祥瑞를 보스본던 아래와 다르디 아니함시니 (釋詳 13:36)

아리 날오리 嘗言 (內訓 2:17)

아린낭鼻(字會下 2)

이 「아래」야말로 또다시 空間概念의 時間概念化 趨移現象의 一例로 論議될 수 있겠다. 「아래/아리」(前日)와 「아래」(下)는 傍點의 差에서도 느낄 수 있는 바와같이 皮相的으로 보면 전혀 關係없는 語辭들이다. 그러나 바로 그 傍點의 差異가 空間概念으로부터 時間概念으로 옮겨온 里程의 表示로 볼 수는 없을 것인가? 「아래(下)」는 첫 단계로 「앞(前)」이라는 方位上의 空間概念과의 合一이 이루어지고 두번째 단계에서 다시 「前日」이라는 時間概念으로 옮겨게 되는데 이 때에 現在로부터 時空的으로 “멀다”는 느낌이 聲調의 變化를 입게 하였다고 說明한다면 이것

13) 金完鎭, 이문 時期에 있어서의 韓中言語接觸의 一斑에 대하여, (國學研究 Ⅶ-1) 1968

이 군색한 附會인가? 14) 「아래」는 形容詞 「아스라하다(杳茫遠)」와의 關聯性도 「아래」와 아울러 가지고 있는듯 여겨진다. 이와같은 推理는 진작 無涯의 古歌研究에도 다음같이 나타나고 있다.

『前世生은 아빃뉘엿 생이라 (月印 1:6)

曩 아리 向也 昔 嚮日也 (字會下 2)

向來 아리 依前 아리부터 (語錄解)

向前 아전 (儒齊必知)

「아래」의 原義가 「向한 날」임에도 不拘하고 도로혀 「前日, 昔日」의 義로 逆用된 字會의 所說같이 漢字 「向, 嚮」通用에 依한 「嚮日」의 譯語일일는지 모르나 根本的으로 是 時間語彙가 종종 前後逆用되기 때문이다. 例컨대 後日(뒷날)은 前日 往日의 義가 아닌 도로혀 「將來日」이다. 「曩」의 訓 「아래」와 「下」의 訓 「아래」는 全然別語이나 그 窮極의 語源은 同一하다 하겠다.¹⁵⁾

여기에서 興味있게 發見되는 事實은 空間概念이 「前, 後, 앞, 뒤」를 利用하여 時間概念을 表示할 때에 「前」단 過去를 指稱하는 것이 되고 「後日」「앞날」「뒷날」은 모두 未來를 表示한다는 點이다. 이것은 空間概念으로부터 時間概念을 導出해 내는 人間의 意識(韓國人의 意識)의 觀點을 單一한 方向으로 固定시키지 않는다는 點과 人間의 意志(韓國人의 意志)가 늘 未來志向의 이라는 點을 考慮해 넣게한다. 過去를 나타내는 日字 「아래」에 對하여는 앞으로 더 考究를 要하는 語辭로 남겨 두고 이제 다른 語辭로 關心을 옮겨 보기로 하자.

「어제(昨日)」는 鷄林類事의 「訖載」에 神經을 쓸 경우에 「어」의 音節

14) 「아래(下)」 「아래(前日)」 「앞(前)」 등의 語辭들은 보다 이른 時期에 「앞」에 그 起源을 두고 있으며 이것이 各各 「ar」「ap」으로 分化됨을 可能性을 생각할 수 있다.

*arp / \begin{matrix} ar \\ ap \end{matrix}

따라서 「아래」나 「아래」는 모두 「ar」에 處格接尾辭가 붙어 名詞化됐을 것으로 보인다. 現代國語에서 「밟-」(踏)은 方言에 따라 「발-」과 「밟-」의 두 形態를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示唆하는 바 있다.

15) 梁柱東, op. cit., p. 743 p. 744

末에 어떤 子音이 存在했을 可能性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現在로선 그 所從來를 알 길이 없다.

「오늘(今日)」은 日數를 나타내는 一聯의 語辭들 “*호틀 이틀 사흘 나 올 열흘” 등과 同列의 造語過程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온+ 올/을」로 分析되는데¹⁶⁾ 이때에 「온-」은 무엇일까? 「當日, 即日, 迎日 到日」이라는 意味의 追跡은 「다가온(到及)」 날이라는 推測을 갖게 하지만 쉽게 結論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다.

「明日」 또는 「來日」을 指稱하는 固有語는 後期中世國語以後는 全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鷄林類事의 「明日曰 轄載」가 있는 것으로 보아 分明히 固有語 語辭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訓民正音創制以後의 記錄에는 그 비슷한 것도 文獻에 나타나지 않았다. 漢字의 威力은 「轄載」를 잃은 時期부터라고 假想해 볼 수도 있겠다.

「再明日」에 該當하는 語辭는 鷄林類事의 「後日曰 母魯」以後 겨우 初刊朴通事에서 다시 나타난다.

모되는 天敎日이니, 後日是天敎日 (初朴通上 9)

오늘부터 모되스강하고 파호리라, 從今日起後日罷散(初朴通上 75)

이 「모되」의 語源을 「멀-(遠遐)이나 「무르-(退)에 關聯시키는 問題를 檢討해 보았으나 아직은 無理가 있는 것 같다.

「모되」의 다음날 즉 再再明日을 指稱하는 「글피」「글피」는 中世國語資料에서는 發見되는 바가 없다. 단지 다음 初刊朴通事의

『그저글피 오라, 大前日來了 (初朴通上 51)』

와 같은 例를 通하여 「글피」라는 語形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글피」가 또 우리의 想像을 刺戟한다. 그 想像은 다음 두 段階를 設定할 수 있다.

16) 이와같은 形態素分析은 <-올/-을>이 日字를 나타내는 接尾辭라는 前提를 받아 풀일 때에만 可能해진다.

第一段階

그(其)+을(日字表示接尾辭)>*글(“그날”“明日” 또는 未來의 뜻)

앞(前)+이(處格接尾辭) *알피(未來日의 뜻)

第二段階

*글+*알피(變異表記形으로 ‘알피’)>글피>글피

즉 「*글」과 「*알피」라는 두 語辭에 共通으로 있는 “리”을 中心點으로 混淆結合現象이 發生한 것으로 보인다. 「그저글피」라는 用例는 이러한 複合過程을 거친 「글피」에 “그-, 저-”가 二重으로 덧붙은 모습이다. 이 推定이 妥當하다면 역시 「앞」 혹은 「앞슴」이라는 空間概念이 時間概念의 語辭로 轉用된 例를 더 얻은 셈이다.

以上으로 語源探索을 끝맺고자 한다. 15世紀나 16世紀의 文獻에만 依存한다면 「오늘」을 中心으로하고 過去나 未來로 擴大되는 日令語彙를 完全하게 再構하기는 힘들 것같다. 時期가 훨씬 늦지만 17世紀末葉의 資料 譯語類解(1690 A.D.)에 나오는 日令語彙를 參考로 添記한다.

大前日	곳그제
前日	그제
昨日	어제
當日	그날
今日	오늘
明日	니일
後日	모리
外後日	글피

萬一 後期中世國語資料로만 적는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그저 그저피	前(昨日以前の 어느날)
어것피	昨日
오늘	今日
니일	來日
모리 도리	後日
*글피	外後日(?)

그저급의

外後日

6. 結 語

以上으로 簡單히 中世國語의 時令語彙 몇개에 대한 語源問題들 다루어 보았다. 焦點에 들었던 語辭들로는 「연」「더녀」「아래」「글피」程度이지만 이들 語彙가 우리에게 示唆한 바는 時間概念을 어떻게 認識하게 되는 것인지를 部分的으로는 밝혀준 셈이다. 勿論 中世國語資料를 正確하게 읽었다는 前提下에서의 論議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類의 論議는 前提된 假設이 言語資料에 의해 證明되었다는 느낌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아직 滿足할만한 증거를 찾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語源論이란 時代가 經過한 뒤에 言來의 隱喻를 再發見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化石化된 詩를 보려는 慾望이 지나칠 경우 虛妄한 獨斷에 빠질 우려가 있음은 숨길 수 없다. 이 작은 作業中에도 그러한 危險이 전혀 없지 않았을 것이다. 未解決의 問題點들을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가며 앞으로 機會있는 대로 語源窮究의 자리를 더 마련해 볼 생각이다.